



2025 세계 기부 환경 지수: 동아시아 지역 보고서

지역 보고서 검토: 1 데이비드 P. 제인스 박사²
인디애나 대학교 릴리 패밀리 필란트로피 스쿨 편집

요약

동아시아의 자선활동 환경은 이 지역 주요 국가들인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의 서로 다른 정치 구조, 역사, 문화로 인해 매우 다양합니다. 자선활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은 1) 혁신, 2) 분야의 전문화, 3) 세대 변화, 4) 새로운 법률, 5) 역사적 요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자선 단체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선활동 환경은 많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영역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경향을 경험하고 있고, 국가 간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에서 자선활동 분야의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을 통한 기부 등 새로운 기부 방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자선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선활동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문 교육이나 훈련 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선활동을 직업으로 삼기가 어렵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길도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자선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효과를 확실히 보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도 이 지역의 자선활동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에서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해외 활동이나 파트너십이 제한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자선활동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정부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부정행위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본, 한국, 대만에서는 법적 구조가 자선활동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관료주의적 간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각국은 자선활동과 관련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지금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자선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킹, 전문성 개발 활동, 그리고 더 명확한 경력 경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처럼 일부 국제 파트너십을 제한하는 경우, 비영리단체와

1 2025 GPEI 보고서의 저자들이 2022 GPEI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보고서는 해당 국가 및 경제권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American Friends of the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자선활동 리더들의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모금 및 개발 교육과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들이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성공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 1: 2021-2023 동아시아 지역 수준 동향

운영 용이성	세금 인센티브	국가 간 자선 흐름	정치 환경	경제 환경	사회문화 환경	전반적 상황
안정적	안정적	부정적	안정적	부정적	부정적	혼합적

출처: 인디애나 대학교 릴리 패밀리 필란트로피 스쿨, 2025 세계 기부 환경 지수

주요 연구 결과

I. 자선단체 (PO)의 설립/등록, 운영, 해산

개인이 해당 조직을 얼마나 자유롭게 설립하고 법인화할 수 있는가?

자선단체가 과도한 정부 간섭 없이 얼마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가?

정부가 자선단체를 폐쇄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어느 정도인가?

- 이번 연구 대상 모든 국가에서 자선단체 설립을 위한 명확한 법적 구조가 존재하지만, 절차, 자선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구조, 조직 설립에 필요한 업무량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법인 설립에는 한국, 일본, 홍콩에서 약 30-60일이 소요되며, 대만에서는 조금 더 걸리고 초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0달러 미만입니다. 중국에서는 비용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자선단체의 경우 약 5,000달러 정도 들며, 활동을 감독할 국가기관을 찾아야 하는 등의 법적 요건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자금 오용, 세금 사기, 스캔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각국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보고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는 2018년 재단법을 제정했고, 이 법 제24조는 재단이 포괄적인 회계 시스템, 내부 통제, 감사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2008년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에서 사단과 재단의 운영 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지역의 정부들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법 위반이 없는 한 자선단체를 폐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선단체는 그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 내 거버넌스도 일반적으로 조직을 해산할 권리가 있습니다.
- 홍콩과 중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 활동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있어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II. 국내 세금 및 재정 문제

세제가 자선 기부에 얼마나 유리한가?

세제가 자선단체의 기부금 수령에 얼마나 유리한가?

- 대만, 한국, 일본, 홍콩에서는 적절히 등록된 조직에 대한 기부에 명확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기부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의 경우 2022년 성인의 약 50.6%가 기부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 자선단체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50,000개 특정비영리활동법인(SNC) 중 3% 미만만이 기부금 세액공제 지위를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내각부, 2024). 한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에서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11%만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지위나 공익활동 수입에 대한 면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국세청, 2024). 중국에서는 자선단체가 면세 지위를 얻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 지역 대부분 국가의 기업들은 적절하게 이뤄진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율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III. 해외 기부 흐름

해외 기부에 법적 규제 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가?

- 홍콩, 일본, 한국, 대만의 규제 환경은 해외 기부에 대해 모두 우호적이지만 세금 공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홍콩의 환경은 해외 기부에 있어서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이며, 개인들이 국제 조직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를 추가 비용이나 장애물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 또한 해외외 기부를 허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 단체가 국내에서 세금 면제 단체로 등록되지 않는 한 이 기부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기부금 유입이 허용되며, 중국에서는 2016년 중국인민공화국의 해외 NGO의 중국 내 활동 관리법으로 인해 외국 자금 수령에 심각한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홍콩에서는 해외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USD \$50,000 이상, 일본에서는 USD \$200,000 이상일 경우).
- 긴급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일부 세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대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 기부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IV. 정치 환경

정치 환경이 자선활동에 얼마나 우호적인가? 공공 정책과 관행이 자선활동에 얼마나 우호적인가?

- 이 지역의 정치 상황은 매우 역동적이며, 전반적인 추세는 특히 한국, 대만, 일본에서 자선단체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왔지만, 정치적 변화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2년 출범한 한국의 현 정부는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 감소와 자선단체 운영에 대한 규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새 정부 하에서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위원회도 폐지되었고, 감사를 통해 자선단체 활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일부 자선단체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고, 중국에서는 국가 통제와 규제로 인해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 대만과 일본은 현재 자선활동에 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2023년 '사회혁신실천방안 2.0'을 통해 자선활동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비영리단체의 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8년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자선단체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정부가 무엇이 공익인지 정해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선단체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반면 홍콩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이슈를 다루는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고, 해외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비영리 활동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V. 경제 환경

경제 환경이 자선 활동에 얼마나 유리한가?

- 코로나19는 이 지역 전체의 자선단체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특히 이미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풀뿌리 조직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전체에서 상당한 회복력과 경제 상황 개선을 보여주며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홍콩의 기부 문화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선단체들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기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기업 기부는 이 지역 자선단체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지원이 자선 단체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대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인해 자선단체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한 만큼의 재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VI.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행이 자선활동에 얼마나 유리한가?

- 일본과 홍콩에서 각각 불교와 기독교 전통이 초기 자선활동 전통을 조성했습니다. 불교는 일본 자선활동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Yamaoka, 1998), 홍콩은 영국 통치 하에서 종교 기반 조직들의 오랜 영향을 받았습니다.
- 중국은 강한 자선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부족한 편입니다.
- 세대 변화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새로운 기부 방식, 임팩트 투자를 채택하고 있고, 임팩트를 중시하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만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축소는 자선단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 기업 기부 문화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며,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개인 기부보다 기업 기부가 더 활발했습니다. 미국 자선활동의 상당한 영향으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기업 기부를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VII. 기후 변화와 자선 활동

기후 변화에 관한 자선 활동의 역할에 대한 간단히 요약해 주십시오.

- 환경을 지원하는 자선활동은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부족이나 인식 부족이 주된 문제입니다. 공적 자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 부문이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전체에 걸쳐 효과적인 환경 법안을 막는 장벽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단과 같은 자선단체들은 환경 및 기후 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VIII. 자선 활동의 새로운 경향

어떤 주요 사건들이 자선활동 대응을 촉발했으며, 어떤 자금원이 이를 해결하였습니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및 지역적 환경 재해들이 자선활동 대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튀르키예와 일본의 지진은 상당한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 같은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이 자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고, 자선기관, 개인, 기업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비영리 부문과 자선활동에서 나타난 주요한 지속적 혁신이나 영향은 무엇입니까?

- COVID-19는 여전히 이 지역의 공익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많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소규모 풀뿌리 조직은 예산이 적고 마케팅/브랜딩 제약이 있어 큰 공익 기관에 비해 회복하기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선단체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그 이후 이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기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 부문과 자선 활동에 중요한 문제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 홍콩의 국가보안법과 중국의 국제 협력 억제 정책으로 인해 자선단체와의 해외 협력에 대한 국내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에서는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국내 자선단체들이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을 통한 기부 같은 새로운 기부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정부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데, 2022년에 설립된 디지털개발부의 비영리운영 전담 부서가 그 예입니다.
- 세대 변화도 자선활동의 임팩트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와 자선활동에 직접 참여하려는 욕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지난 10년간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협회 같은 지역 기구들이 임팩트에 집중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면서 자선활동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 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네트워킹과 전문성 개발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경력 경로 부족과 전문 교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모금협회 같은 국내 조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선 문화를 촉진하고 전문화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2024). Who We Are. Retrieved from <https://avpn.asia/who-we-are/>
-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2022). *Hong Kong as a philanthropy hub*. Retrieved from https://caps.org/work/our-research_hong-kong-as-a-philanthropy-hub
-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2024).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Website. Retrieved from <https://jfra.jp/en>
- Onishi, T. (2017). Institutionalizing Japanese philanthropy beyond national and sectoral borders: Coevolution of philanthropy and corporate philanthropy from the 1970s to 1990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8(2), 697–720.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stable/44668853>
- The Japan Association of Charitable Organizations. (2024). Taxation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General Nonprofit Corporations (in Japanese). Retrieved from <https://kohokyo.or.jp/jaco40/sector/taxation/detail/>
- Yamaoka, Y. (1998). On the history of the nonprofit sector in Japan. In T. Yamamoto (Ed.), *The Nonprofit Sector in Japan* (pp. 19–58).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이 보고서의 추가 정보를 위한 출처는 각 국가별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globalindices.indianapolis.iu.edu/index.html>